

비말 마스크 대란 '5부제 도입' 목소리... "비싸다" 지적도

웰킵스 주말 서버 복구 진풍경... 2곳은 아직 판매일 · 판매처 조정

이른 무더위에 '가성비' 제품으로 꼽히면서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는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지난 5일부터 시중에 풀렸지만, 이번에도 '대란'은 이어졌다.

정부는 기존 공적마스크와 달리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허가업체에 마스크 판매를 자유롭게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일각에선 5부제 도입 목소리도 나온다.

마스크 생산업체 웰킵스는 8일 오전 9시부터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인물인 '웰킵스몰'과 '네이버스토어' 두 개 채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했다.

지난 5일 온라인 판매 시작 전부터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해 채널을 하나 더 늘렸지만 이날 오전에도 소비자들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판매 시작 10여분 만에 '품절'된 상태다. 파인텍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부 온라인몰에서 소량 판매 중이지만, 홈페이지는 여전히 '일일 트레이픽

용량 초과' 상태다. 케이엠의 경우 판매일과 판매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아직 '오프라인' 판매가 되지 않아 시중 약국에도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사러 왔다가 허탕을 치고 가는 시민들이 계속 몰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500원으로 책정된 가격 또한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50~100원에 유통되던 텐탈마스크 가격보다 아직 비

싸다는 지적이다. 웰킵스의 경우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500원, 텐탈마스크는 350원으로 가격 책정했다. 다른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도 5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당국은 '당장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 남은 업체들이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생산 판매하게 되면 1곳당 약 20만장씩 최소 하루 80만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현재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추가되면 하루 100만장 생산량은 빠르게 넘어서 수요



8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를 맞출 수 있다고 예측했다.



칸막이가 일상이 된 교실 풍경 초·중·고등학교 4차 등교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용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차 등교 대상 학생은 총 134만 9374명이다. 초등 학교 5학년 42만9025명, 6학년 44만8621명, 중학교 1학년 47만1728명이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 594만5310명의 22.7%다.

해운대 등 해수욕장 3곳 개장

내달까지 267개 예정... 해수부 중심 현장점검 강화

해운대해수욕장 등 국내 해수욕장 3곳이 개장함에 따라 방역당국과 해양수산부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물놀이를 제외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 뱉기 자체를 자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내용을 담은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을 포함해 해수욕장 3곳이 개장했다"며 "현재 해수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 위치한 해운대해수욕장은 연간 이용객 수가 1000만명

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송정해수욕장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해수욕장으로 올해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7월까지 전국 267개 해수욕장이 개장할 것으로 보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세부지침을 배포하고 현장 점검 중이다.

세부지침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은 기업과 학교, 종교단체, 지역 동호회 등 단체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단위 이용을 권장한다. 배사장에서는 햇빛가림 시설은 2미터(m) 거리를 두면서 설치하고, 가급적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게 좋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샤워시설을 이용할 때는 한 칸 떨어지기, 관리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입장 전에는 발열검사와 손 소독, 방문기록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놀이 구역에서는 침 뱉기 자체 등 방역수칙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종사자는 개인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하며,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시·도·시·군·구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방역 상황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 중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용객 분산을 위해 대형 해수욕장보다는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권고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코로나19 완치 '격리해제'

경찰 고발조치... 다른 질병으로 인하대병원 재입원

'허위 진술'로 지역 내 '줄감염'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고발된 '학원강사(25·남·인천 102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인 학원강사 A씨가 코로나19 완치 후 격리 해제됐다. A씨는 지난달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인하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후 입원 27일만인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질병으로 병원 내 다른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9일 "무직이다"고 밝혀 관계당국에 혼선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A씨가 대학 4학년 학생으로 미추홀구 소재 세움 학원강사이고, 연수구에서 B군과 C양 쌍둥이 남매의 과외수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A씨의 거짓말로 다수의 인천시민이 검체검사를 받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A씨를 지난달 14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지역 내 A씨로 인한 n차 감염이 이어졌다. 그 감염은 강사 소속 학원 수강생과 수강생 방문 PC방, 동전노래방 등 시설 이용자로까지 번졌다.

또 학원강사와 접촉 후 확진된 수강생(인천 135번) 방문 동전(코인) 노래방 이용한 프리랜서 사진작가(49·인천132번)가 방문한 라온파티 뷔페도 감염이 이어졌다.

장마철 코앞인데 가뭄걱정... '마른장마' 7년째 계속되나

올 여름 평년 장마 기간 강수량보다 적을 가능성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 지역은 북상한 정체전선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0일쯤 저기압 영향으로 제주 일대에 비가 내리겠다. 이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은 인근에서 남북으로 정렬된 비의 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장마철은 시작되지만 시작된 비가 얼마큼 계속될지, 제주가

아닌 내륙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철에 접어들더라도 통계상 비는 10일 중 5일가량 오기 때문에,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하거나 △빠른 북상 △포 약해져 한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시기도 많다"면서 "중부와 남부지방의 본격적인 장마철 시기를 단정하기에 이르다"는 신중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는 6월26일째 장마가 시

작됐고, 2018년에도 같은 날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평년의 경우 중부 6월 24~25일, 남부 같은달 23일, 제주 19~20일 시작했다.

8월 말까지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마철 비의 양이 적을 경우 올 여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른 장마' 가능성이 있다.

'마른 장마'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19 장마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장마기간에는 291.1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평년(356.1mm)의 82%로, 2014년 이후 6년째 계속됐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